

진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반문화를 중심으로 —

김 소 영 · 양 숙 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Beauty Characteristics Expressed Jean Fashion

— Focusing on Counter-culture —

So Young Kim · Sook Hi Y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6. 2. 9 접수)

Abstract

This study of counter-culture—the cultural background of the Jean Fashion of which express the consciousness and youthfulness of young—shows the various social, cultural developments and the direction of growth for the Jean industry.

Until now, the fashion trends flowed from the elite, upper-class minority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in the case of the Jean Fashion, it has spread inversely to the upper-class from the young people who have adopted the life-styles of the lower, middle-class, working people. With the emphasis on Jean Fashion's establishment through and within a counter-culture influences, the first chapter explores the counter-culture's background theory and how fashion has metamorphosized within the counter-culture. The second chapter explores the image of the jeans within the society of the youth and the general public. Finally in the fourth chapter, this study divides the images of Jean Fashion within the youth and the general population into classifications of Feminism, Eroticism, Dismantlement. Thus,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above stated theories have had great influence on the Jean Fashion Industr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Jeans are the representative article of clothing of unisex appeal which is the core characteristic of Feminism. Feminism, which surfaced coincidentally with the emergence of jeans in the 1850s, took charge of expressing the freedoms and the wills of women.

2. Jeans, being the representative article of Eroticism, have firmly entrenched its image in the young people's wardrobe through mass media such as movies, music, and commercials.

3. In the 90s the tendencies of Defacement and Dismantlement of Jeans developed. In the Dismantlement tendencies of colors, the color blue foretells of the century's coming to an

end, and blue also expresses the superiority of spirit and intelligence which transcends materialism.

I. 서 론

본 연구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의식과 젊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용되었던 진패션을 반기성문화의 상징이자 반문화적 상징으로 보고, 사회·문화적 흐름과 함께 어떤 미적 특성을 지니고 성장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진패션은 의복을 통해 자유와 해방감을 표현한 반문화적 이미지의 표출이다. 반문화란 기존의 윤리와 가치에 기초를 둔 일반문화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전통적인 도덕의 물리에 기인한 보편적 가치관의 부재를 배경으로 나타났다. 진패션의 대표적 색채인 블루는 우울함과 비참함, 동시에 그것에 저항하는 웃음과 슬픔이라는 양면의 감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진패션은 현대 사회의 해체 기항속에서 소외감과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전통적인 규범에서의 이탈을 조정하였고, 의복을 통해 민주적 가치의 표현과 신분계급, 인종차별, 엘리트주의를 없애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진패션이라는 복식의 한 품목을 한정하여 그 시대복식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당대의 사상 및 사회문화가 어떻게 복식문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작업복에서 출발한 진패션은 청년문화와 대중문화 속에서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영향속에서 성립된 진패션을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로 한정지어 그 시대의 사회문화와 연관시켜 미적 특성을 분류해 보았다. 이러한 미적 특성을 고찰해봄으로써 미래의 복식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리라고 생각되는 진패션의 활용방안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진패션에 표현된 반문화성을 고찰하기 위해 반문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그에 따라 형성되어온 반문화 패션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다. 둘째, 청년문화와 대중문화 속에서 형성된 진패션의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진패션에 영향을 준 반문화적 성향과 청년문화와 대중문화를 통해 성립된 미적 특성을 페미니즘, 에로티시즘, 해체주의적 경향으로 분류해 보고, 복식 조형의 창조적 의미를 진패션에서 찾고자 하

였다.

II. 반문화 패션

우선 문화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문화는 대중들의 현재 삶의 목적이나 관심으로부터 생겨난 것들” 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실현하는 모든 형식들”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반문화는 전통적인 미·추의 개념과는 그 노선이 다르지만 주제나 재료 선택에 있어서 미학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반성과 익명성 그리고 비전문성을 추구하는 것이다¹⁾.

반문화는 하위문화를 표현 수단으로 하여 광범위한 대중문화 현상에 영향을 끼치고²⁾ 있으며, 중첩과 전이의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일상케도를 벗어난 복장은 기존사회에 대한 부정과 어떤 집단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최초의 형태이다. 새로운 유행이 반대파나 젊은이들의 반항 심벌이 되는 모습이 자주 보여지는데, 1800년부터 1859년에 걸쳐 여러가지 혁명을 일으킨 유럽의 공화주의자들의 복장, 유색인종, 반식민지주의, 제3세계의 반란 등을 통한 젊은이들의 의복은 그들의 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³⁾.

186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의 반문화 스타일로 주목받은 뉘디는, 고전적 남성상과 구성을 달리한 매력적인 남성복을 연출하여 그 시대의 반체제적, 반문화적 의상의 혁명이라 불렸으며, 이는 자신을 표현하는데 제한되었던 19세기 남성복을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⁴⁾.

또 60년대 히피문화는 전통적 가치관의 부정과 경쟁사회에 대한 반문화적 체제이며, 히피스타일의 본질은 반항적이고 자연스러운 미에 대한 믿음이었다⁵⁾. 대량생산된 의복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낡고 오래된 중고 의류(second hand style)의 착용은 패션에 대한 거부를 보여주고 있다⁶⁾. 진패션과 반문화적 복장의 다른 모든 소지품들이 기존 계층의 물질적 지위상징을 조롱했으며, 노동자나 프롤레타리아의 의복으로 터틀넥(turtle neck)의 스웨터, 블루진과 점퍼 등이 일반화되었다.

히피패션이 부유층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반문화적 메시지는 약화되고 그 이미지만이 값비싼 디자이너의 제품으로 옮겨갔다.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글로리아(Gloria), 반더빌트(Vanderbilt), Yves Saint Laurent 등의 컬렉션에 블루진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1850년 리바이 스트라우스에 의해 등장한 진패션은 1900년 이후 산업화 물결 속에 이전까지의 작업복이라는 인식으로부터 탈피, 이때부터 도시에 사는 일반인들도 착용할 수 있는 평상복 개념의 진패션으로 바뀌게 되었다. 1950년대 중반기에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진을 착용하였으며, 이것은 암울하고 환멸에 가득찬 60년대의 반항적인 이미지와 정치적 견제, 성(性)과 약물중독 등과 함께 반문화적인 상징이 되었다. 이처럼 여러가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다양한 유행의 흐름을 이끌어온 진패션은 특히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기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나타났던 주목할만한 의복행동이었다. 1970년대 들어 디자이너 진이 나타남에 따라 진의 초기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위와 브랜드의 차별화가 이루어졌으며⁷⁾, 다양한 복식 아이템과도 잘 어울리는 트레더셔널한 의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III. 진패션의 상징

1. 청년문화의 상징

어느 시대나 청년들이 형성한 문화가 존재하지만, 1960년대 젊은이들에 의해 출현한 신문화를 기성세대들은 청년문화(youth culture)라고 부른다⁸⁾. 청년문화는 엘리트 문화와 대중 문화의 간격을 좁히는 데서 시작되었으며, 젊은이들은 고전이나 권위, 위선, 남녀간의 차별 따위를 타파하려는 노력을 했다.

젊은이들의 복장은 외관상 다양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료나 친구집단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스테레오 타입(stereo type)화 되어 있다. 젊은이들은 진패션을 유니폼처럼 착용하여 젊음을 상징하였으며, 실용적인 복장이자 가장 대중화된 개성적인 복장으로 여겼다. 뒵굴어도 구김이 가지 않고, 얼룩이 흠이 되지 않으며, 솔기가 뜯어지고 바지 면이 찢어져도 근사한 변신으로 간주되는 진패션은 젊은이들의 문화적 상징의 정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착용한 진패션에는 건강한 노동자의 삶과 그들의 생생한 삶의



[사진 1]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Elizabeth Ewing, 1989, p. 239.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사진 1].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은 “블루진은 기성세대에 대항하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젊은이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반항을 나타내었다⁹⁾.

60년대 말 우드스탁 페스티벌(Woodstock festival), 히피와 반전 운동 및 흑인 공민권 운동의 열기, 마르쿠세(Marcuse) 등의 문명 비판주의적 문화 혁명론과 같은 혼란된 상황 속에서 70년대 청년 문화의 위상은 단연코 블루진 차림의 젊은이었다. 세발드(H. Sebald)는 하위문화로서의 청년문화에 대해 “복장에 대해 성인과의 독립된 표준이 지켜지는 형상 이것이 청년 문화의 한 기능이며 청년 심리의 반영”이라고 하였다¹⁰⁾. 히피들이 그들의 표현양식으로 블루진을 택하여 착용한 원인은 평등사상이며, 인간의 자유와 힘, 젊음의 욕구를 발산하는 블루진은 단순한 옷의 범주를 넘어 가장 대중화된 문화적 상징의 존재가 되었다.

블루진은 코카 콜라, 리콜리 껌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삼대문화 중의 하나이며,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의 표현으로 반항정신을 표출하였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또 타인과 구별되려고 상표를 바깥으로 내보여 착용하였다[사진 2].

전세계의 젊은이들, 특히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을 듯한 서유럽 민주국가의 극좌파나 공산당 지지자들, 나아가 철의 장막에 가리워져 있던 젊은이들에게까지도 미국의 영향력이 진패션을 통해 놀랄만큼 미치고 있다¹¹⁾. [사진 3]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캘리포니아 진과 성조기에서 착상을 얻은 장식은 이미 보편화되었고, 결국 의복은 이제 착용자의 성별을



[사진 2] Esprit. The comprehensive design. Rolaindo publishing Inc. 1994.



[사진 3] L'uomo Vogue, 1982. 9.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2. 대중 문화의 상징

대중문화란 신문, 잡지,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등

과 같이 대중에게 어떠한 사실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말하며, 이러한 대중매체의 발달은 의복의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¹²⁾. 20세기 중반 이후 대량생산과 대중매체의 발달은 본격적인 기성복의 시대를 활짝 열어 놓았다. 대중문화 옹호론자인 사회학자 갠스(Herbert J. Gans)는 대중문화의 개념으로 매스컬처(mass culture) 보다는 퍼플러 컬처(popular culture)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중문화란 대중에 의해 선택된 취향문화의 하나로써 고급문화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였다¹³⁾.

60년대 젊은이들의 상징이었던 블루진 패드(fad)가 수년내 온 미국과 세계의 유행으로 신속히 전파, 보급된 원인과 배경을 대중문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중문화는 제일인자라느니 완성품이니 혹은 극치나 최고봉이라 할 예술가나 작품이 있을 수 없으며, 우리를 반영하는 '완성해 가는 문화'이다¹⁴⁾. 대중문화 중 영화, 대중음악, 광고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진패선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살펴보겠다.

1) 영화 속에 표현된 진

1920년대말 카우보이 영웅들이 거친 데님 진즈와 재킷을 입고 출연했던 미국의 서부 영화에서 진패선이 나타났으며¹⁵⁾, 서부 영화의 영웅들이었던 제리 쿠퍼와 존



[사진 4] Geschichte der Mode, Erika Thiel, Weltbild Verlag, 1990, p. 424.

웨이인 등의 건장한 체구는 시부라는 거친 배경과 질기고 꾸밈없는 진패션을 통해 남성미를 표현해 내었다.

50년대 영화에 출연한 젊은 빈항아들은 영화팬들에



[사진 5] Fashion In the Forties & Fifties, Jane Damer, London: Ian Allan LTD, 1975. p. 104.



[사진 6] Marie Clair, 1994. 10.

게 블루진에 대한 불멸의 이미지를 남겼다. 예를 들면 <와일드 원즈(The Wild Ones)>(1954)에서 가죽과 블루진을 착용한 폭주족으로 등장한 말론 브란도[사진 4], 블루진을 착용한 거친 남성미를 보여주었던 엘비스 프레슬러[사진 5], <이유없는 반항>(1955)에서 블루진을 착용하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고독한 불량 청소년 역을 한 제임스 딘을 통해 블루진은 반항과 분노의 상징이 되었다¹⁶⁾. [사진 6]은 94년도 잡지에 나타난 게스(GUESS)의 광고로 제임스 딘과 닮은 모델을 이용해 50년대의 블루진의 이미지인 분노와 반항을 90년대에 맞게 재현함으로써 쉽게 이미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누렸다.

70년대에 들어와 전세계적으로 미국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통해 티셔츠와 블루진의 열풍이 일어났고, 바지를 비롯한 셔츠, 조끼, 재킷 등의 다양한 복장이 일상복으로서 위치를 구축하면서 진패션이 세분화되어 발전하였다.

2) 대중음악 속에 표현된 진

대중음악의 유행구조는 당대 현실의 진지성과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 구조에는 가장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대중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독특한 재현의 방법이 존재한다. 특히 대중음악의 파급효과는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는 독특한 재현의 틀을 가지므로 다른 대중문화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¹⁷⁾.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뮤지션들의 의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록의 뿌리중의 하나인 블루스는 노예해방 후 19세기 말, 남부에서 탄생한 음악으로 흑인들은 우울함(blues)과 비참함으로부터 도피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저항하는, 즉 웃음과 슬픔이라는 양면의 감정을 담은 블루스라는 음악을 창조하였으며¹⁸⁾, 블루진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의 발전과 청소년층의 경제권 참여는 상류층이나 엘리트층이 점유하였던 스타일이나 상징성을 모방, 조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들 특유의 청소년 문화를 탄생시켰다¹⁹⁾. 1950년대 로큰롤은 틴에이저의 반항과 비행 그리고 폭력과 관계된 음악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주면서 진패션이 작업복이 아닌 캐주얼 웨어로서 각광받게 되었다[사진 7].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의 중심적 문화형태인 록 뮤직은 기존의 음악에 반항하는 젊은층의 정직성에 대한 표현으

로서 젊은이들의 욕구불만에 대한 정신적 고뇌의 소산이었다.

90년대 힙합 패션에서 상포를 그대로 붙인 채 자기



[사진 7] Fashion In the Forties & Fifties, Jane Domer, London: Ian Allan LTD, 1975, p. 114.



[사진 8] Unmo collezione, 1994 S/S, p. 324.

치수보다 훨씬 큰 블루진을 엉거주춤 걸치고 노래하는 흑인 래퍼들에 의한 공격적인 무대가 등장하였다[사진 8]. 여기엔 미리 자기 체격이 커질 것을 대비해 너넉한 치수의 옷을 사 입어야 했던 흑인 청소년들의 심각한 비애가 담겨 있다. 이것은 전통적 도덕의 몰락에 기인한 보편적 가치관의 부재를 배경으로 현대사회의 해체가 젊은 세대에게 소외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하여 전통적인 규범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3) 광고 속에 표현된 진

광고에는 양의성(兩義性)이 있다. 첫째, 광고는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근원적으로 갖고 있으므로, 상품정보에 대한 '선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경제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광고는 그 시대의 사회적 이미지를 필연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광고는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그 사회의 생각, 태도, 동기, 희망 그리고 가치를 다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광고는 '공감소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존재'이다²⁰⁾.

리바이스(Levis)는 여러가지 주제의 광고로 대중들의 시선을 끌어왔는데, '리바이스 501 블루스' 캠페인의 광고는 평범한 사람들이 리바이스 501 청바지를 입고 일하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등장시킨 개척자적 광고이다[사진 9].



[사진 9] 1941년 7월.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Elizabeth Ewing, 1989, p. 140.

‘여자를 위한 진’이라는 컨셉트로 전개된 광고 시리즈는 20세기 추상표현주의의 거장 앙리 마티스(Matisse)의 화풍을 패러디하여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필치로 화가의 작품을 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²¹⁾. [사진 10, 10-1] 그리고 ‘어디에든 꼭 맞다’는 주장과 함께 리바이스를 터번으로 쓴 모습, 말고삐로 사용된 모습, 스모신수의 팬티로 사용한 장면 등은 누구나 어떤 경우에도 입을 수 있다는 점에다 약간의 허구성을 가미하여 보는 이의 시선을 끌고 있다.

또 위대한 예술작품들에 대한 체계적인 도용에 의해 진패션에 대한 여러가지 효과를 시험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찢어진 블루진을 입고 있는가 하면, ‘천지창조’를 모방해 벌거벗은 아담에게 하느님이 블루진한 벌을 건네주는 독창적인 광고도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즐겨 입는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블루진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권위나 허

세가 없어서 어떤 세대도 거부감없이 입을 수 있는 의복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파격적인 테마를 담은 모노톤의 사진으로 제작된 게스의 광고는 기존의 패밀리 지향의 정통 대중진 브랜드와는 달리 타겟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집중시킨 고가의 섹시한 디자이너진이다. 게스는 과거의 고전적이고 우아한 여성미를 철저히 배제하고 드러남, 흐트러짐, 부르짖음, 눈부심 등 걱정의 현장을 표현, 그 강렬함이 도발의 충동을 유도하고 있다.

캘빈클라인은 ‘미와 섹시(Beauty & Sexy)’를 주 테마로 잡고 이를 광고로 표현하였는데 평범함 속에서 충격을 얻어내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섹스를 주제로 상품 이미지를 이끌어 온 브랜드의 눈꺾선적인 이미지 구성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 11]은 블루진을 입고 앞드려 있는 사람의 영당 이를 배경으로 두 사람이 거닐고 있는 광고사진이다.



[사진 10] Matisse, "The Artist and His Model", N.Y.: The Easton Press, 1991, p. 104.



[사진 11] Italia Koncross, 1984. 4.



[사진 10-1] Vogue, 1993. 2.



[사진 12] United Colors of Benetton, 94/95 Fall Winter Catalog.

여기서는 삶의 구체적인 다양성들이 절단되어 인체의 추상적인 단면을 얼굴없는 익명성과 양성성으로 나타내었다. 또 [사진 12]은 허리에서 허벅지까지만 드러낸 광고로 이것은 선택적인 확대를 통해 강조하고픈 곳을 도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다.

또 진제품에 대한 광고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상품의 광고속에서도 진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사진 13]은 데님 소재로 만든 부츠로 진제품에 대한 간접적인 선전 방법이며, [사진 14]는 코카콜라의 광고로 대중적인 사람이 대중적인 음료를 마신다는 것을 진패션 착용



[사진 13] Elle. 1987. 6. p. 96.



[사진 14] British Elle. 1986. 5. p. 70.

으로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진=대중성'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하게 굳어져가고 있는 증거이다.

IV. 진패션의 미적 특성

1.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의복 혁명으로,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반문화적 의복을 통해 기존문화에 대한 반항과 해방을 표현하였다²²⁾. 페미니즘은 전통적인 경계 즉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지배계급과 주변부 사이의 틈을 무너뜨리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기존문화에 대한 반항과 해방을 표현하는 여성들의 의식과 조건 변화는 의복을 통해 나타났다. 예전의 드레스는 '사물화된 여성'의 속성으로만 이해되었으나, 이제 여성들은 여성다움을 예찬하는 음모에 휘말려 여성 스스로 자신들을 예측시키는 역할을 했던 의복 대신 경쾌함, 안전, 독립성을 가진 의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여성들의 블루진 착용은 1935년 Vogue의 패션 특집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2차대전 중 여성들이 남성들의 영역이었던 산업활동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점차 블루진 착용이 확대되었다²³⁾.

1960년대 미국패션은 여성해방과 성적개방이라는 두 이슈로 특징 지워질 수 있으며, 여성이 처해 있는 조건이나 사회전체에서 현대에 들어 중요한 반항을 일으켰던 유행은 미니스커트, 팬티스타킹, 판탈롱이었다. 1970년대의 페미니즘은 브라지어로부터의 해방과 여성의 '성'을 무시한 기능적인 옷의 착용으로 표현되었으며, 여성들은 미니 스커트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테일러드 슈트를 모방한 스타일과 블루진, 그리고 부드럽고 긴 팬츠를 선호하였다. 팬츠가 사회적으로 공인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70년대 팬츠 슈트의 착용은 여성해방의 큰 결실 중의 하나로 남녀노소, 나라, 시기를 불문하고 실용성에 의해 채택되었다.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친 블루진과 판탈롱의 폭발적 인기는 성평등의 메시지가 숨어있다. 블루진은 격식을 거부하며, 가장 격렬하게 승리한 페미니즘의 대표적 의복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던 분단선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였다.

블루진의 탄생은 블루머(Bloomer) 여사가 여성해방운동의 상징으로 내놓은 개량복 바지와 그 시기를 같이 한다. 이러한 블루진은 60년대 후반 반문화에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보다 표면적인 평등정신에 의

해 채택되어졌다. 오늘날 유니섹스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블루진은 남녀 평등사상의 표현물로 입혀진 의복이라는 점에서 여성해방 운동의 결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970 년대에 파리 뉴만(Newman)의 의상발표회에서 남자가 똑같이 바지 앞부분에 지퍼를 단 쪽 끼는 진즈와 스포츠 코트, 점퍼, 스커트와 셔츠 블라우스 차림에 크라바트와 스카프를 장식한 복장으로 등장하여 화제를 모았다²⁴⁾. 옆구리에 붙어 있던 지퍼가 바지의 앞으로 옮겨 온 것은 여성도 건강한 사랑의 의지와 성적 욕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예로부터 여성 패션에서는 [사진 15]에서와 같이 남성스타일을 입음으로써 역으로 여성다움을 표현하는 트랜스베스티즘(의상도착증)의 테크닉을 많이 사용해 왔다.



[사진 15] Collezioni Donna, 92-93. A/W, Vivienne Westwood. p. 258.

2. 에로티시즘

모든 인간의 마음 근저에는 무의식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의복에 대해서도 인간은 두가지 상반된 심리를 나타내는데 신체를 노출하고 과시하여 관심을 끌려는 것과, 나체를 가림으로서 정숙성을 가능케 해

주는 동시에 숨겨진 부분을 상징하거나 주의를 모음으로 성적 흥미를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다. 플루겔은 이에 대해서 “복장은 성차 자체를 강하게 하려는 욕망 즉 성적 열정을 좀 더 용이하고 빈번하게 환기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며 이에 유행은 성감대의 이동에 따라 변해 온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²⁵⁾.

유행은 성적인 장식과 과시를 문화적인 형식으로 화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행은 어떤 특수한 방식으로 성현상이 전이된 것이다. 70년대 후반 대량생산으로 인해 의복이 비개성화 되었고, 의복에 관한 사회적 조차이가 많아짐에 따라 기존 의복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여성들은 성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남성으로부터의 차별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패션에 있어서 여성의 신체를 강조한 에로티시즘은 독특한 색시묵으로 출현했다. 성의 해방과 자유화는 성애의 실질적인 개방이나 고양보다는 성의 상품화와 그에 대한 과도한 노출 즉 성의 시각화, 영상화, 지식의 과잉을 가져왔다.

1970 년대의 에로티에 대한 강한 조류는 의복의 적합성과 편안함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을 고수하려 했던 유니섹스와 비성화된 경향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앞의 단추여밈법 등의 성적 구분은 에로티시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사진 16] Italia Vogue, 1993. 3.

진패션에서의 성 혁명은 자유로운 성의 혁명이 불결치던 60년대에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이 불루진 광고에서 섹시한 포즈를 취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진패션의 성적 이미지가 그 상품의 성패를 결



[사진 17] Marie Clair, 1994. 5.



[사진 18] Italia Vogue, 1993. 3.

정짓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1972년, 미국 시장에 뛰어난 프랑스의 봉주르사는 섹시한 느낌의 부드럽게 물결 뻗진 패션을 들여오면서 텔레비전 방송에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광고를 퍼부어 소비자에게 강력한 성적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특히 80년대 들어 새로운 브랜드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기에는 상품 문화로서의 에로티시즘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다. [사진 16]은 불기 모양의 바지 형태로 앞쪽의 치부를 뽐내듯 드러내 보이는 꼭조인 진바지를 입은 모습으로 에로틱을 표현하였고, 속내의가 보이도록 블루진을 착용한 모습, 그리고 90년대에 걸맞는 대담한 성적 이미지를 새롭게 표현한 켈빈 클라인[사진 17]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에로틱한 메시지들이 선보였다. 진 생산업자들은 적극적인 신장성이 내포된 메시지를 생산해 내면서 결국 진패션에 있어 에로틱함이 대중들에게 가장 어필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앤 홀랜더(Anne Hollander)는 서구예술에서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변하는 여성 누드의 시각적 개념이 20세기 중반 이후 패션으로 입혀진 진의 이미지에 의해 최초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사진 18]. 게스(Guess)는 현대인이 갈증하고 있는 강렬한 에로티시즘을 테마로 정하였다. 과거의 관념이나 가치기준으로 볼 때는 성의 타락, 도덕의 문란이 떠오르는 장면도 과감히 테마로 채택하고 있는데, 일례로 동성연애, 가학증, 피학대증과 같은 자극적인 테마로 표현되고 있다.

3. 해체주의

해체주의가 표명하는 이슈는 서구의 현전하는 형이상학적 사유를 체계화하고 전체화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해체주의는 인간 주체, 언어적 자아, 역사적 인과성, 그리고 문화적 진실에 입각하여 종래의 형이상학적 체계에 대해 대단히 비평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해체와 패션과의 관계를 예를 들면, 재킷 안감이 바깥 쪽에 있을 수 있거나 소매가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해체된 조각들이 다시 옷의 전체성을 상상하게 하는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마지엘라는 의복 구조의 분해적 폭로와 낭만적인 부패성에 대한 풍부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반면, 장 폴 고티에는 안과 밖 또는 속옷과 겉옷의 구분을 없었다. 고티에가 마돈나 무대 의상 등의 예에서 보여준 충격은 비밀스런 속옷을 공식

적인 무대라는 외부로 드러냄을 통해 기존의 옷에 있어 안과 밖의 개념이 부너짐으로써 파생되었으며, 그 충격은 양면적이었다. 또한 마지엘라에 의해 노출된 옷의 구조적 골격은 의복의 완전한 존재성에 대해 우리가 갖는 기대감에 대해 일종의 폭력적 해체 행위를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해체주의 패션의 성격은 의복의 구성적 규범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옷이 갖는 또 다른 능력을 위한 풍부한 은유가 제공되었다. 따라서 해체 패션은 옷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분석에서 비롯된 현재의 끊임없는 요구들이 생생시킨 존재적 스타일이다.

70년대 중반 이후 진패션이 하이패션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패션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으면서 진패션은 색채와 소재의 다양화를 통해 더 개성화 되었으며, 해체주의적 영향이 곳곳에 표현되고 있다.

진패션의 대표적인 색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색은 블루인데, 안크는 18세기에 프랑스 농부는 모두 파란색 옷을 착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블루를 작업의 색이라 하였다²⁶⁾. 블루는 지성이나 정신성을 나타내는 내면으로 향하는 색이다. 60년대 말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에너지 문제나 환경과피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어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지구의식이 싹트게 되었고, 80년대 말부터 에콜로지 칼라나 아쿠아 칼라로 블루가 시시히 떠오르면서 90년대를 예시하게 되었다²⁷⁾. 따라서 90년대 패션에 표현된 '블루'라는 개념은 파괴되어가는 지구환경에서 벗어나 무한한 대우주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자아성찰적인 색채라고 할 수 있다. 블루는 역사적 인과성에 기인한 신분에 대한 고정관념의 타파를 상징한다는 점, 지성이나 정신성을 나타내는 내면으로 향하는 색이라는 점, 인간 주체에 대한 비평을 표명하는 세기말적인 색이라는 점, 파괴되어가는 자연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에콜로지적 성향의 자아성찰적 색채라는 점, 문명에 대한 도전으로 합리성과 보편적 질서에 대한 비평 속에 인간성 회복과 자유와 자연스러움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해체주의적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해체주의는 90년대 진패션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핑크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이미지가 그런 지적으로 이어지면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1980년

대와 90년대 초에 레이 카와쿠보는 의복이 신체를 감싸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관념을 해체시키는 파괴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는 옷을 제작했다. 20세기 후반의 대중문화는 생명력을 제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옷을 난도질하고, 타락시키고,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해체는 분석적인 창조의 기반이 되었다²⁸⁾. 패션에 있어 해체주의라는 용어는 1989년 '디테일즈(Details)' 잡지에서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에 의해 처음 취해졌으며, 특히 패션계에 본격적인 해체주의 논의의 전환심을 마련했던 것은 1989년 10월 파리에서 마틴 마지엘라에 의해 선보인 90 S/S 컬렉션에서였다²⁹⁾.

뿔어진 구멍, 슬리쉬, 단어나 구호가 프린트된 티셔츠, 핑크족들이 무질서하게 장식하였던 견장, 지피장식, 탈색된 진, 글씨를 거꾸로 쓰거나 운동화 끈을 다른 것으로 매는 것, 상포나 박음신 솔기를 겹으로 한 것, 검은 안경 등은 젊음을 표현하는 해체의 수단이 되고 있다. 또 뺏뺏하고 푸르던 블루진이 점점 퇴색하고 남아있는 그것이 오히려 다른 의복과는 달리 독특한 멋으로 여겨졌다. 립스(Theoder Lipps)는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감정이입의 미학'을 주장하면서, 블루진은 물신적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뿔뿔이 뿔아 너덜너덜하게 되거나 여기 저기 칼로 흠



[사진 19] Marie Claire, 1994. 4.

을 내어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도록 입고 다니거나, 또는 그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자기 치수보다 훨씬 큰 청바지를 엉거주춤 걸치고 거리를 쏘다니는 젊은이들을 통해 새로운 내적 기호를 해체적 요소로 표현하고 있다[사진 19]. 일명 '신세대'라 불리는 이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우리는 흔히 젊음, 자유, 개성과 몰개성, 반항, 특권과 게으름 등의 혼란스러운 어휘를 떠올릴 수 있다. 이제 블루진은 더 이상 반전, 시민,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 운동의 상징성을 띠지 않고, 단지 '서구적', '감각적', '개인주의' 등의 수식으로 치장될 뿐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1990년대 이후의 진패션은 대중들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요소들을 끊임없이 도입하고 있다. 패션은 기존의 것에 새로운 사상을 부여하는 작업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작업을 동시에 행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인식에 비평을 가하는 새로운 해체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세기말적인 여러가지 사상과 접목되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V. 결 론

오늘날 블루진에 대한 태도와 개념은 새 세대의 의식을 표출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동에 제한을 주지않는 자유로운 옷으로, 다양한 용도로 착용이 가능한 의복으로 여겨진다. 1970년대 후기에는 선원봉의 거칠게 만든 색바랜 진이 디자이너들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많은 의류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디자이너" 라벨의 진을 생산함으로써 진이 하향전파하게 되었다. 1990년에 들어와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의 상징, 실용성, 계급차별이 없는 진패션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취향, 차별, 계급적 구분의 전통적 요구에 대한 재도입을 통해 진패션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복은 때와 장소, 경우에 맞게 입혀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개념을 깨뜨리며 진패션은 공식석상에서도 착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패션을 사회문화와 연관시켜 미적 특성을 분류해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진패션은 페미니즘의 성격을 지닌 유니섹스의 대표적인 의복이다. 1850년대 청바지의 출현과 같은 시기에 나온 사상적 흐름의 하나인 페미니즘은 여성의 자

율성과 의지를 표명하는 수단을 담당하였다. 진패션은 기존문화에 대한 반항과 해방의 표현으로 격식을 거부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놓여있던 의복의 구분을 없애는데 기여하였다. 또, 진패션이 남녀평등 사상의 표현물로 입혀지고 성평등의 메시지가 숨어있는 의복이라는 점에서 여성해방운동의 결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2. 진패션은 에로티시즘의 대표적인 의복으로, 60년대 이후 청년문화와 대중스타들의 옷차림과 영화, 음악, 광고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확고한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이제 진패션에 관한 광고에서는 섹시한 포즈를 취함으로써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성적 이미지를 통한 매력 표출은 현대인들의 강렬한 에로티시즘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 그러나 젊자 성의 타락, 동성연애, 가학증, 피학대증과 같은 자극적인 에로티시즘으로 변해가고 있다.

3. 90년대 이후의 진패션은 의복을 다시 재구성하고 구성된 의복의 해체를 요구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색채에서의 해체적 경향인 블루는 파괴되어 가는 지구 환경에서 벗어나 무한한 대우주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자아성찰적인 색채로서 세기말을 예고하고 있다. 이 질적인 소재의 결합이나 착용은 진소재 특유의 거칠고 강한 이미지와 부드러운 소재를 융화시켜 독특한 비를 이루고 있으며, 밀단이 많아 너털너털하게 되거나 여기 저기 칼로 흠을 내어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 해체의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다. 진패션은 기존의 패션에 새로운 사상을 부여하는 작업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작업을 동시에 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새로운 해체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세기말적인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1) 미술비평연구회 대중시각매체 연구분과 엮음, 「상품 미학과 문화이론」(서울: 눈빛, 1992), p. 126.
- 2) 안소연, "장 뒤뷔페 작품에 있어서의 반문화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3) Marc-Alain Descamps, 이연숙(역), 「유행심리 (Psychosociologie de la Mode)」(서울: 동문출판사, 1993), p. 52.
- 4) Elizabeth Wilson, *Adorned in Dreams —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Virago Press, 1985. pp. 179

- 180.
- 5) Brake, Mike. *Youth Cultu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5.
 - 6) Elizabeth Wilson, 앞의 책, p. 193.
 - 7) Rebecca H. Holman, Suzanne E. Wiener, "Fashionability in clothing: A Value and Life-style Perspective", *Psychology of Fashion*, Michael R. Solomon (edited by), (N.Y.: Lexington Books, 1986), pp. 87-88.
 - 8) 허버트 J. 갠스, 강현두(역),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서울: 삼영사, 1981), p. 157.
 - 9) Michael and Ariane Batterberry,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N.Y.: Greenwich House, 1977. pp. 369-371.
 - 10) Sebald, H., *Adolescence: A Sociological Analysis*. N.Y.: Appleton Century Craft, 1978.
 - 11) Marc-Alain Descamps, 앞의 책, p. 155.
 - 12) 메리볼프, 양숙희(역), 「패션」. 서울: 경춘사, 1995.
 - 13) 강명구,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민음사, 1993.
 - 14) 시미즈 토모히사, 박시중(역), 「팝문화의 꽃과 독」. 서울: 개마고원, 1993. pp. 34-36.
 - 15) William Gilohrist & Roberto Manzotti. *Cult*. Verlag AG: Sportswear International, 1992. p. 34.
 - 16) 서동진, 「Rock, 젊음의 반란」. 서울: 새길, 1993. pp. 52-54.
 - 17) 강내희, 이성옥(공저), 「문화분석의 몇가지 길들」. 서울: 문화과학사, 1994.
 - 18) 서동진, 앞의 책, pp. 25-26.
 - 19)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 46.
 - 20) Baken, Stephan. 「광고 크리에이티브」. 서울: 나남, 1989.
 - 21) 김덕자,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확장하는 패러디", 「광고정보」, 1994. 5. pp. 71-76.
 - 22) E. Wilson, 앞의 책, pp. 228-230.
 - 23) William Gilohrist & Roberto Manzotti, 앞의 책, pp. 56-76.
 - 24) 김미경, "현대 여성복식의 특성 및 그 의미에 관한 고찰 —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p. 52-55.
 - 25)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92.
 - 26) 안향신, "현대 복식에 표현된 색채 상징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색채 경향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27) 末永滄生. 「色彩トレント '90s」. 동경: フレミテント社, 1991.
 - 28) Martin, R. & Kada, H. *Infra-Apparel*. N.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3. pp. 12-46.
 - 29) Amy M. Spindler, "Coming Apart". (New York Times. July 25, 1993.)